

2017년 3월 31일, 조천읍 신촌리 이명언 씨 댁, 강수경 조사.

이명언(남, 1925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• 줄거리: 신촌리 마을 조씨 집안에 사람이 육지에 장사를 갔다가 밤에 큰 폭나무 앞을 지나오고 있었다. 처음에는 여자가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아주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서 잡아끌었다. 거의 싸우다시피 버티면서 겨우 살아서 집으로 왔는데 얼마 못 가서 죽었다.

구씨라는 사람은 조천하고 신촌 사이에 도깨비가 잘 나타나는 곳에서 도깨비한테 홀려서 원당봉까지 갔다. 또, 풍채가 좋고 건장한 사람도 산촌에 갔다가 밤중에 진드르에서 여자를 만나 홀려서 원당봉 아래 바다까지 갔다. 그 여자가 빨리 오라면서 바다에 풍덩 빠졌지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.

[제보자] 그, 저, 옛날은 여기도 도깨비 그순새라는 그 저 뭣이 있었어. 그순새가 하늘하고 굿등헤가지고 사람이 건너가질 못 허여. 악악헤 불어가지고. 그 그순새라는 도깨비가. 그 건너믄 사름이 죽어 그냥. 직사해. 그 건너지 말라고 헤여. 그런 거 나면.

그런데 그 우리 어렸을 적에 여기도 막 그순새가 나고 도깨비가 나고 헣다는 데. 나 눈엔 안 보이거든. 나 눈엔 안 보여. 난 평생에 이 도깨비, 나이가 많았지 만은. 도체비도 못 보고 도깨비도 못 보고. 본 일이 없어. 내가 보민 그 저 없어 져부니까.

[조사자] 어르신, 그런 얘기 그럼 들은 이야기 잊어마씨? 보진 않아도. 아까 그순새, 도깨비라는 게 이 신촌마을에서 자꾸 나오는.

[제보자] 아,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저 속데기 무실이라고 저 우이 속데기 무실이라고 잇는 데. 그 마을이 속데기. 글로 조씨 집안에 사람이. 글로 이제 어디 육지 장사갓다가 동으로 내려서 밤에 오는데 큰폭낭이 있었는데. 아 어떤 놈들이 그냥 아 지나 오는데. 아 그 처음은 여자가 나왓다가 네중엔 그냥 아주 무지헌 사람덜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잡아서 끌으니까. 안 갈라고 허지 갈라고 허지 그러니까 막 쌍다시피 헤서 겨우겨우 자기 집에 가니까 그 사름이 살긴 살았는데. 그 얼마 못

가서 죽었어. 그런 거 당하면. 얼마 못 가서 죽고.

여기서도 저 조천허고 신촌 사이가 아주 그게 헛게비가 잘 나는데. 거기서 구○○이라는 사름이 도깨비안티 홀려가지고, 저 웬당오름??지 갔다니까. 웬당알??지. 가고. 막 그 저 실헌 사름 막 건강헌 사름도 거기에 걸리믄 말이여. 걸리면 우리 웬당도 상당히 풍채가 좋고 건강헌 분인데 저 어디 웃드르 간 내려오다가 밤중에 진드르에서 여자를 만났어.

그니까 조금 가면 미쳐질 듯현데, 빨리 걸으믄 빨리 가불곡, 아 이 천천히 가믄 또 천천히 가곡. 그러니 저 웬당알 그 바닷가꺼지 갔어.

게니까. 신도 다 일러버리곡 옷도 다 짖어지고. 그냥 그 홀리니까. 그 제라헌 질례가 아니고 허천딜로 그냥 막 가노니까 옷도 막 짖어지곡. 헌디 막 바다에 가니까 물속으로 텁벙 들어가 불멍,

“빨리 옵서.”

해두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불었어. 그 여자, 앞에 걷든 여자가. 게니까 그때 죽을 건데 그래도 살아서 와가지고 그것도 옛말이 되고.

- 핵심어 : 그슨새, 도체비, 여자, 웬당알, 도깨비, 속데기, 조씨, 구씨, 웬당오름, 신촌리